

문화

작품 수준 향상... 현 세대 반영 작품 많았다

시·소설·동화 1430편 작년보다 크게 늘어...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 해외서도 응모

2013 광주일보 신춘문예 응모작 보니

세상이 힘들수록 문학적 상상력으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글쓰기가 대폭 늘어났다. 응모작도 각박한 현실을 소재로 사용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새해 첫날 아침 신문 1면에 이름이 실리는 것을 시작으로 문단에 데뷔하려는 응모자가 크게 늘어나는 등 문학을 향한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경제 위기와 문학의 열기는 반비례한다는 속설을 증명하는 셈이다.

지난 15일 광주일보 신춘문예 공

모를 마감한 결과, 시·소설·동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모두 1430편이 응모해 지난해(1027편)에 비해 403편이 늘었다. 특히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응모자층이 매우 넓어졌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경북, 강원, 충북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항공우편으로 원고를 보내왔다.

3~5편 응모하는 시 부문의 경우 모두 1101편이 응모해 가장 많았고 소설과 동화 부문 응모자는 각각 177명과 152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컴퓨터 글쓰기가 익숙한 현실에서도 원고지에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써 작성한 원고를 보내오는가

하면, 시부시스템까지 직접 작성해 첨부하는 등 문학 지망생들의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실감케 했다. '각주'까지 첨부한 원고도 눈에 띄었다.

이번 신춘문예의 심사는 소설 부문에 정찬·이순원, 시 부문에 김정란·박남준, 동화 부문에 이상권씨가 각각 맡았다.

예심과 본심을 거친 응모작들의 경우 전 부문에 걸쳐 소소한 일상을 다루면서도 어둡고 답답하고 막막한 현 세대를 반영한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가족간 갈등을 다룬 가족 이야기, 실직·퇴직, 사채 등 '파란 삶'이 주된 테마로 등장했는데 응모자들은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으로 형상화

함으로써 현실의 고달픔을 승화시키려는데 초점을 두었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등 사회적인 이슈를 소설화한 응모작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미래 한국 문학을 이끌어갈 신인 작가 발굴한다는 신춘문예의 취지에 어울릴 만한 참신함을 갖춘 작품도 적지 않았다는 게 본심을 치른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특히 시 부문 당선작의 경우 지금까지 문단에서 볼 수 없는 참신한 스타일로 심사위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정형화되지 않은 작품 스타일이 신춘문예 고유의 의도를 잘 반영했다는 심사평과 함께 앞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작세계를 개척해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걸었다.

저변 확대도 볼 수 있는 수적 증



'201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본심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정찬·이순원(소설), 김정란·박남준(시), 이상권(동화)씨 등이 18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예비 문인들의 응모작을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가, 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틀에 박힌, 정형화된 낯익은 작품들도 눈에 띄는 등 아쉬움도 발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개성적인 글쓰기보다는 일부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모방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지

적한다.

동화 부문에서는 "응모작의 전반적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지고 일정 수준을 갖춘 작품이 많았다"면서 "눈을 확 잡아끄는 작품은 없었지만 후보작들이 주제, 문체, 아이디어 등

에서 각각 특징점을 갖고 있어 심사 가 힘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편, 당선작은 2012년 1월1일자 광주일보 지면을 통해 발표되며, 시상식은 2012년 1월 중순 열린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지호 '남향집' 김환기 '론도' 근대화화 6점 문화재 등록 예고

문화재청은 국내 1920~1930년대 미술사와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 중 화순 출신 오지호(1905~1982) 화백의 '남향집'(65×86cm)과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화백의 '론도'(Rondo·71.5×61cm) 등 근대화화 작품 6점을 18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남향집의 경우 1933년 작품으로 서구 근대 미술을 대표하는 양식인 인상과 양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토착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목 한 그루가 서있는 뒤로 문을 나서는 소녀와 뜰 아래 누워있는 개 한 마리가 평화롭게 그려졌다. 나무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닌, 푸르게 표현된 화면의 노란 색조와 대비된다.

론도는 1930년대 후반 작품으로 한국 근대화단에서 보기 드문 추상 작품으로 예술성과 근대기의 새로운 조형 실험을 보인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음악적 경쾌한 리듬을 연상시키는 색, 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래픽과 아노나 첼로와 같은 악기를 연상시키는 유기적 형태가 중첩돼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지호 작 '남향집'



김환기 작 '론도'

차노휘 첫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 우수문학도서 선정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한국예술위 "치열한 문제의식 돋보여"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 차노휘씨의 첫번째 소설집 '기차가 달린다'가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2012년 4분기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됐다.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은 문학의 지역적 균형발전과 작가의 창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순수 문학도서를 선정, 전국 문화소의 지역 배부하는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한국도서관협회가 매년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서

를 선정한다.

이번 4분기 선정 우수문학도서 52종 가운데 차씨의 '기차가 달린다'는 "신인의 첫 창작집이자 지방 문단의 현주소, 지역 출판의 발전상을 한눈에 보여주는 야심작이라 할 만하다"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소설가 김형수씨는 "범람하는 소재를 전혀 식상하지 않게 사회 병리학적 컨셉으로 재구성해내는 기량이나 치열한 문제의식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에 선정된 52종의 책을 권당 2000부(아동·청소년은 2400부, 평론·희곡은 1000부)씩 구입해 작은도서관·복지시설·지역 아동센터 등에 배포된다.

차씨는 지난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얼굴을 보다'가 당선, 등단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국악 선율 타고 X-마스 캐롤까지

퓨전그룹 '아이리아' 내일 목요일국악마당 송년음악회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광주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일국악마당' 무대에 선다.

오는 20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는 송년음악회로 꾸며진다.

'초청 얼씨구! 메리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레퍼토리는 대금의 신비로운 선율로 무등산의 씩씩한 기상을 묘사한 '무등의 아침'(임교민 곡)과 광주 구 도심의 활발한 재건을 기대하며 작곡한 'Replay(김백찬 곡)', 올해 열렸던 광주 세계아리랑축전 주제곡인 '빛고을 아리랑' (황호준 곡) 등이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울리는 '얼씨구,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로 캐롤 메들리로 들려준다.

강혜경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아이리아는 광주세계아리랑축전 우리동네 아리랑 경연대회 대상을 수상했다.

또 헝가리주재 한국문화원 공연과 프랑스 광주세계김치축제 홍보 콘서트를 비롯 일본 원로리 아페스티벌 초청 공연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의 무대

21일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오는 21일 오후 1시 30분 빛고을노인복지재단 공연장에서 흥겨운 국악 공연을 펼친다.

(사)임방울국악진흥회(이사장 김중태)가 주최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김미나(2008년

제16회), 김명남(2010년 제18회), 김찬미(2005년 제13회), 차복순(2000년 제4회) 명창이 관소리 다섯 바탕 중 눈대목을 공연한다.

또 가야금명창, 산조합주, 흥겨운 남도민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공연되며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운영하고 있는 국악교실 수강생(관소리, 전통무용, 민요, 다문화반)들의 발표도 이



김미나 김명남
어진다. 문의 062-521-073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하이원스키장 셔틀버스 매일운행

출발장소및시간 영주체육관(03:00)-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육교밑(03:05)-문화예술회관 정문 육교밑(03:10) 출발-하이원스키장 도착(07:40) 하이원스키장 벨리스크리하우스 주차장(16:30) 출발 -광주도착(21:30)

교통비 성인 50,000원 어린이: 40,000원(당일왕복)

셔틀버సు이용자 특전 하이원스키장 리프트권 /스키렌탈 /보드 렌탈 (주중-60%/ 주말-50% 할인 혜택드립니다)

예약방법 : daewontour.com(대원여행사)에서 직접 예약하시면 됩니다

연말 송년모임 예약 받습니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 15,000원 ● 아리랑 하우스 한정식 : 25,000원~

2012년을 보내는 뜻깊은 자리를 금수장 호텔 아리랑 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착한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

www.geumssojang.com